

『2021년, 여성노동자의 삶』

- 광주광역시·전라남도에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를 둔 여성들의 실태조사 결과

결과 요약

- 3/8 여성대회 준비모임에서는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를 둔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199명의 응답자 가운데 남성 응답자 2명을 제외한 수치를 분석
- ‘여성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요?’라는 질문에 대해 ‘육아, 가사 노동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’이 51.78%(102명)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고 ‘직장 내에서의 임금 및 처우와 직책, 지위에 관한 성차별’이 36.55%(72명)로 그 다음을 이음
-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‘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동료가 피해를 입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?’라는 질문에 ‘경험이 없다.’는 응답이 22.84%(45명)로 집계되었지만 ‘고용상 처우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묵인하고 넘어감’이라는 응답이 43명(21.83%)로 매우 높게 집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임
 -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2차 가해가 행해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이 행해질 것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시사함
- ‘여성노동자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?’라는 질문에 ‘성차별적 사회 및 조직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전 국민 대상 교육 확산’이 83건(43.92%)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고 ‘여성노동자들 간의 공감과 연대를 통한 자기 목소리 내기’가 78건(41.27%), ‘여성 폄하 및 비하를 내포하는 공연, 강연 등 방영 및 책 판매 금지’라는 응답이 18건(9.52%)으로 집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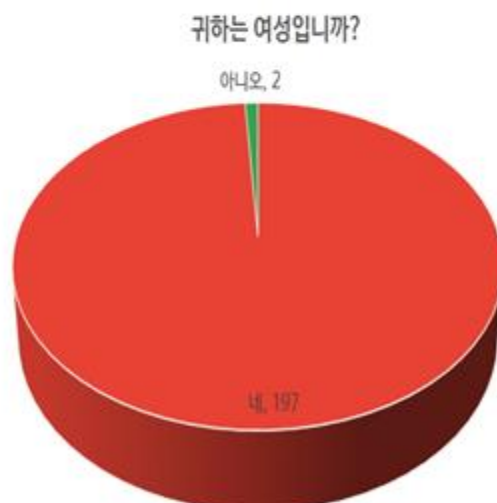
I. 조사 개요

- 조사 주최 : 3.8 여성대회 준비모임
- 조사 대상 :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인 여성 노동자 층
- 조사 기간 : 2021. 2. 17. ~ 2021. 3. 2.
- 모집 방법 : 3.8 여성대회 준비모임 참여단체(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,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,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도청공무직지회,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, 전국민주연합노조 호남지역본부 및 톨게이트지부, 순천YMCA,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,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, 전남노동권익센터)를 통한 조합원 및 동료·지인에 대한 참가 안내 공지, 전남노동권익센터 내담자 문자 발송
- 응답 방법 :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(google 설문지 활용)
- 응답자수 : 총 199명(2명은 ‘여성이 아님’ 으로 제외)

II. 조사 결과

1 기본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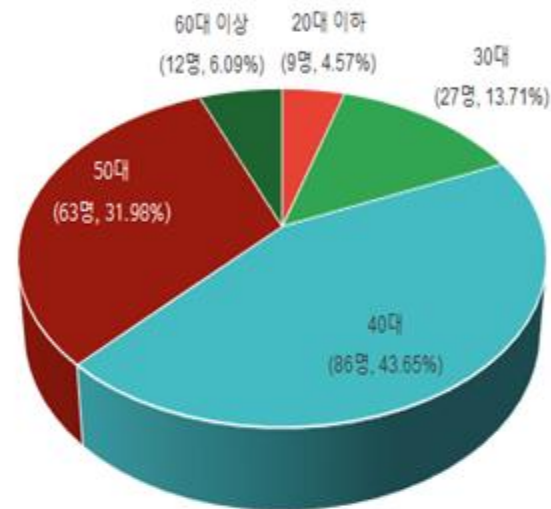
- 총 199명의 응답자 가운데 2명은 여성이 아니라고 응답해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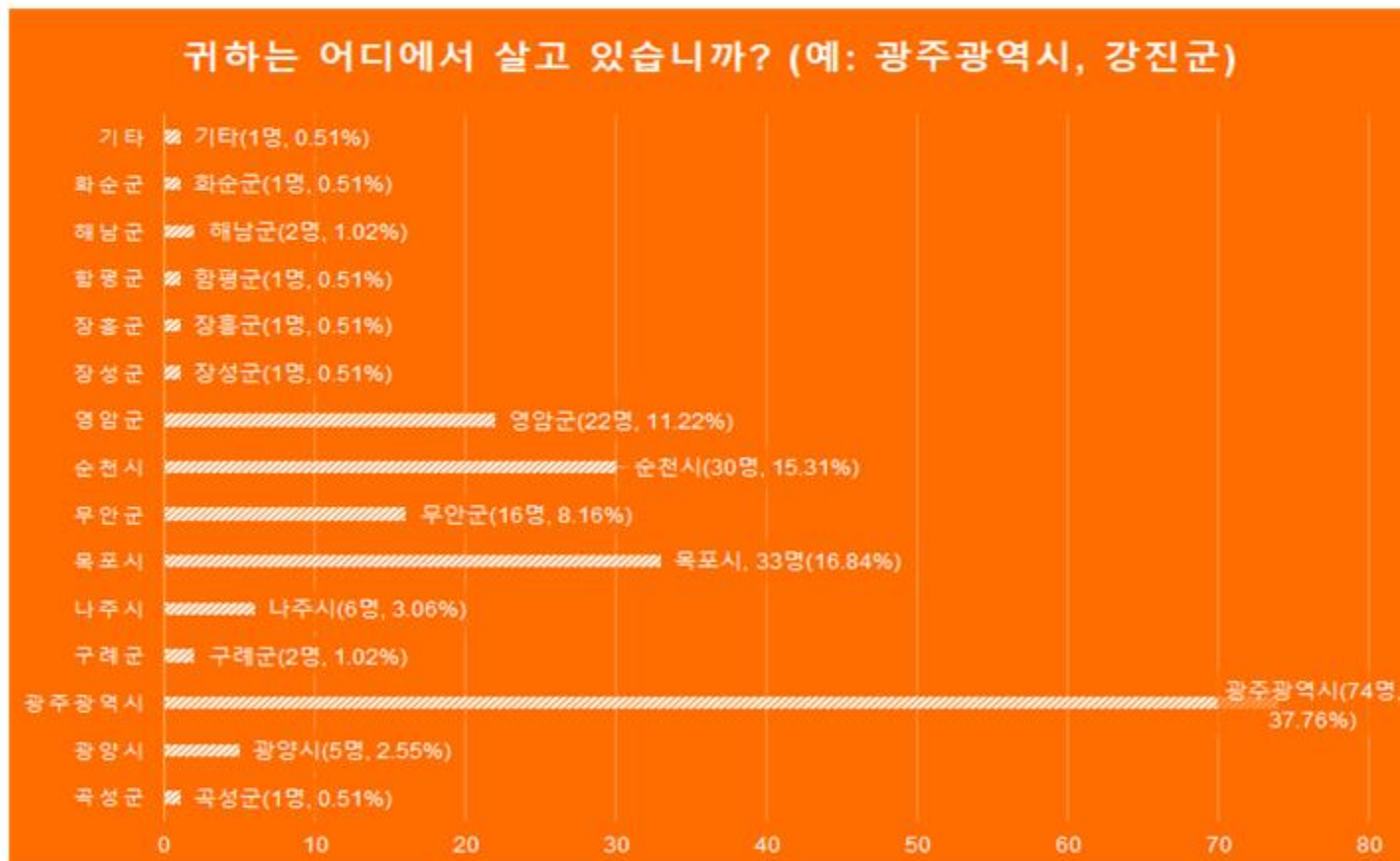
- 연령대에 관한 질문에 대해 197명의 응답자 가운데 86명(43.65%)이 40대라고 응답했고 50대가 63명(31.98%), 40대가 86명(43.65%), 30대가 27명(13.71%), 60대 이상이 12명(6.09%), 20대 이하가 9명(4.56%)으로 집계됨

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?

응답내용	응답횟수	비율 (%)
20대 이하	9	4.57
30대	27	13.71
40대	86	43.65
50대	63	31.98
60대 이상	12	6.09
계	197	100.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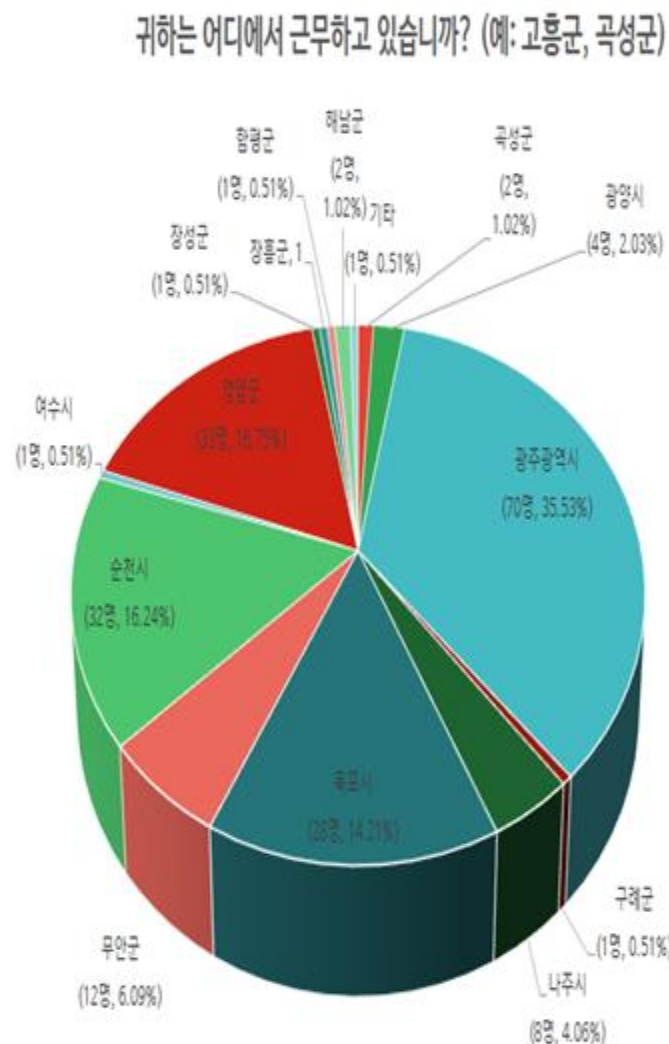


- 거주지에 대한 질문에 197명의 응답자 가운데 74명(37.65%)이 광주광역시라고 응답했고 목포시가 33명(16.84%), 순천시가 30명(15.31%), 영암군이 22명(11.22%), 무안군이 16명(8.16%), 나주시가 6명(3.06%), 광양시가 5명(2.55%), 구례군 및 해남군이 각 2명(1.02%), 곡성군, 장성군, 장흥군, 함평군, 화순군이 각 1명(0.51%),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서 해당하지 않는 소재지(기타)가 1명(0.51%)으로 집계됨



- 근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70명(35.53%)이 광주광역시라고 응답했고 영암군이 33명(16.75%), 순천시가 32명(16.24%), 목포시가 22명(14.21%)으로 집계됐으며 무안군이 12명(6.09%), 나주시가 8명(4.06%), 광양시가 4명(2.03%), 곡성군·해남군이 각 2명(1.02%), 구례군·여수시·장성군·장흥군·함평군이 각 1명(0.51%)으로 집계됨.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가 아닌 소재지인 경우는 1명(0.51%)으로 집계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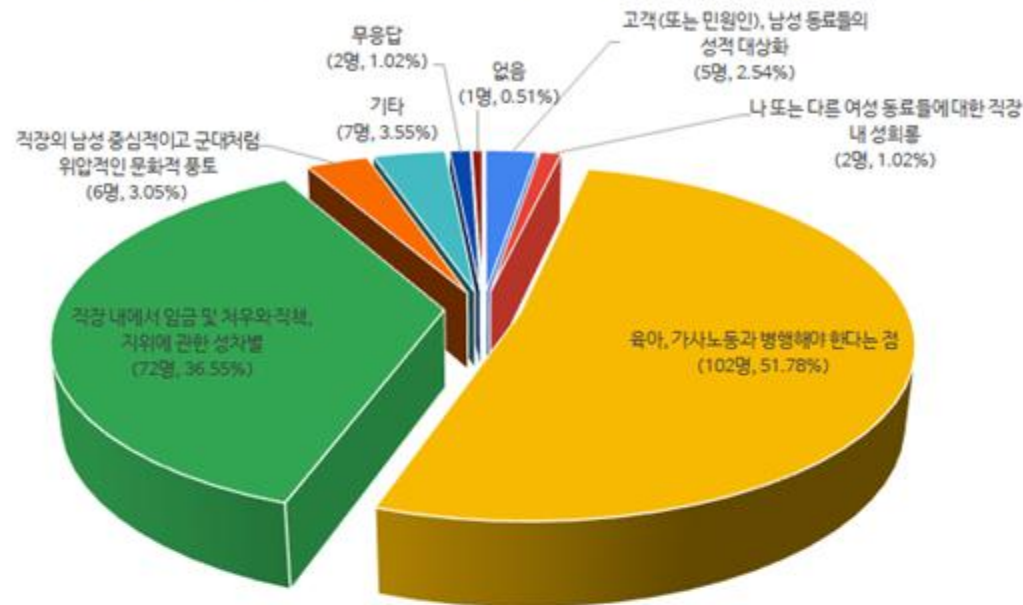
응답내용	응답횟수	비율(%)
곡성군	2	1.02
광양시	4	2.03
광주광역시	70	35.53
구례군	1	0.51
나주시	8	4.06
목포시	28	14.21
무안군	12	6.09
순천시	32	16.24
여수시	1	0.51
영암군	33	16.75
장성군	1	0.51
장흥군	1	0.51
함평군	1	0.51
해남군	2	1.02
기타	1	0.51
계	197	100.00



2. 여성노동자로서의 고충 및 대응방법

- ‘귀하가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요?’ 라는 질문에 대해 ‘육아, 가사노동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’ 이 102명(51.78%)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고 ‘직장 내에서의 임금 및 처우와 직책, 지위에 관한 성차별’ 이 72명(36.55%)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. ‘직장의 남성 중심적이고 군대처럼 위압적인 문화적 풍토’ 라는 응답은 6명(3.05%)으로, ‘고객(또는 민원인), 남성 동료들의 성적 대상화’ 라는 응답이 5명(2.54%)로 집계됨

여성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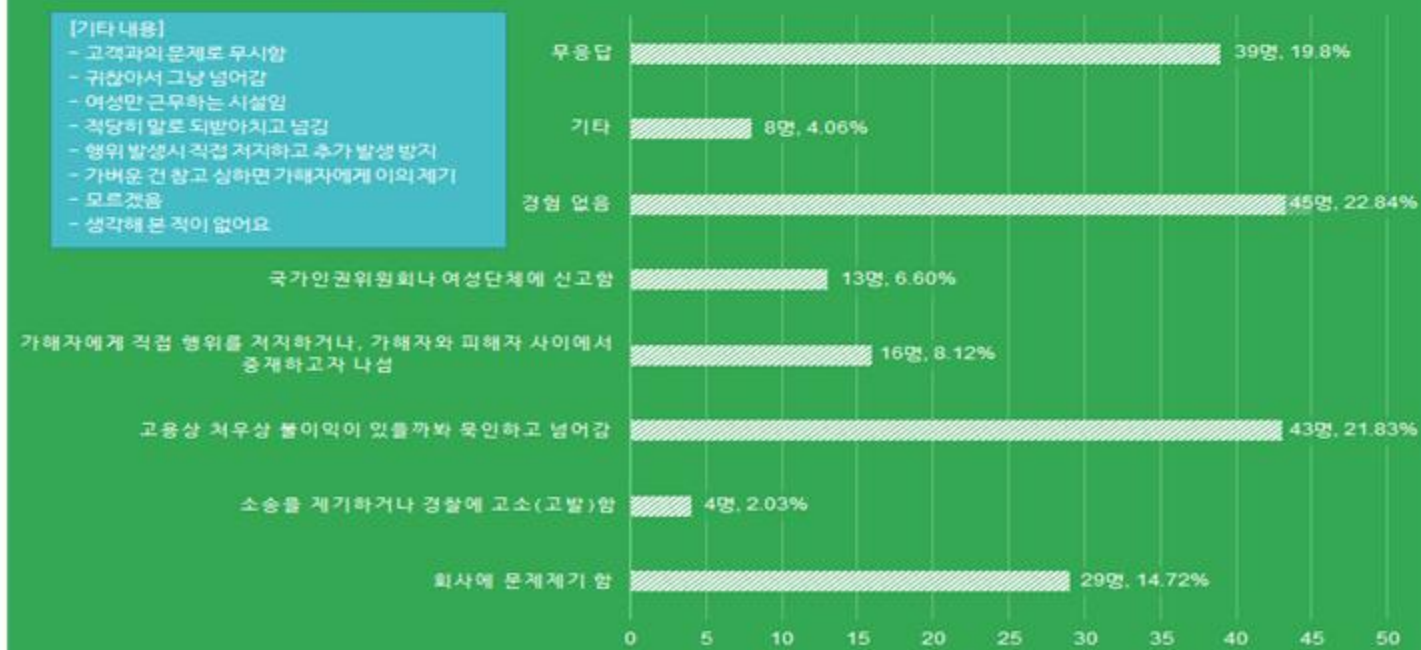


[기타 내용]

- 공무원의 일까지 다 해야 하는 점 등 업무의 한계가 명확치 않음
- 비인간적 차별적인 발언
- 병원장 사모가 출근해서 감질하는 것
- 성차별보다는 경력 대우가 없음

- 다음으로 ‘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동료가 피해를 입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?’ 라는 질문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5명(22.84%)으로 집계되었지만 ‘고용상 처우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묵인하고 넘어감’ 이라는 응답이 43명(21.83%)로 매우 높게 집계되었다는 점은 특징적임.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2차 가해가 행해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이 행해질 것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시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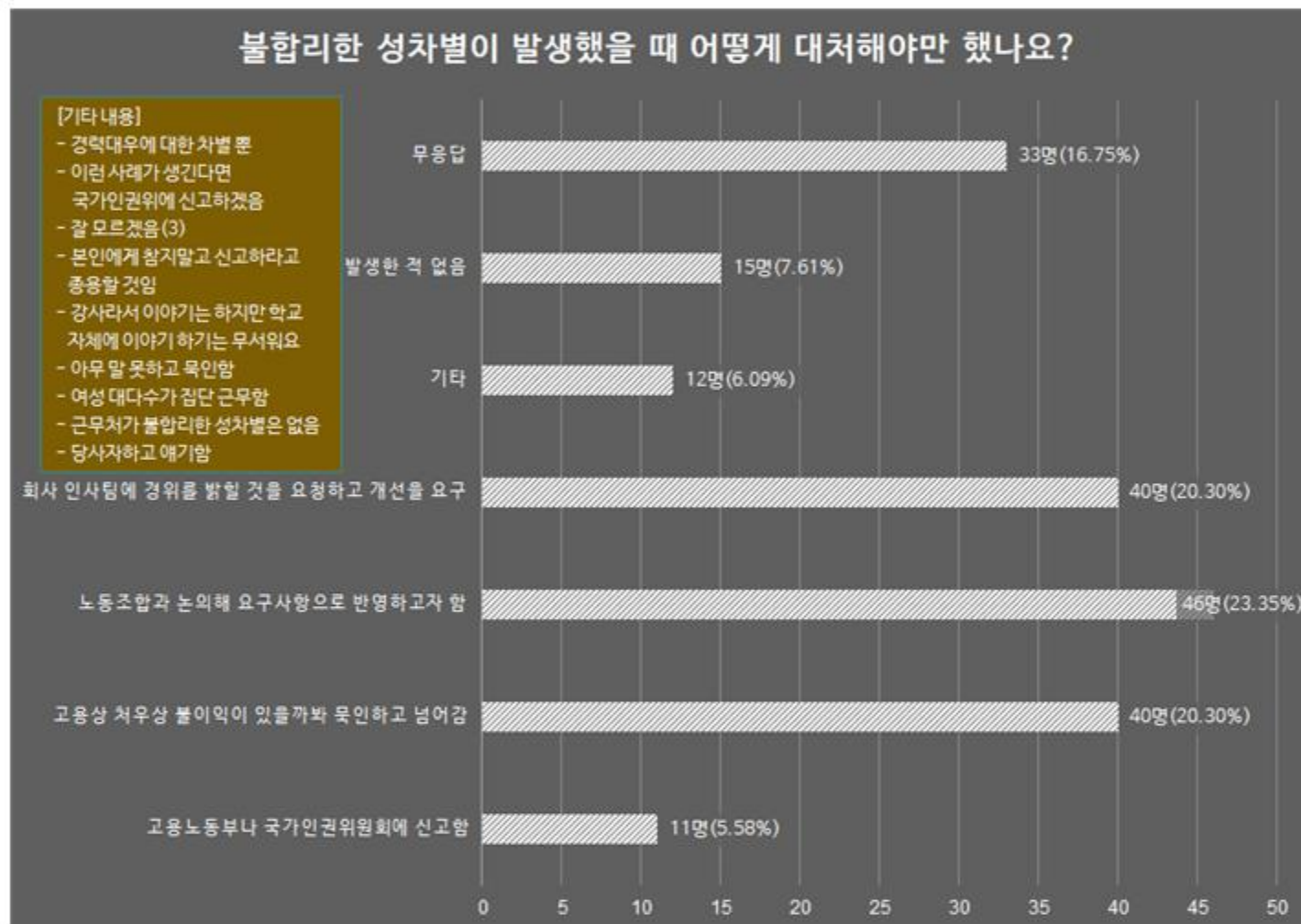
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동료가 피해를 입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?



[기타 내용]

- 고객과의 문제로 무시함
- 귀찮아서 그냥 넘어감
- 여성만 근무하는 시설임
- 적당히 말로 되받아치고 넘김
- 행위 발생시 직접 저지하고 추가 발생 방지
- 가벼운 건 참고 심하면 가해자에게 이의제기
- 모르겠음
-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

- ‘불합리한 성차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만 했나요?’ 라는 질문에 대해 ‘노동조합과 논의해 요구사항으로 반영하고자 함’이라는 응답은 46명(23.35%)으로 집계되었고 ‘회사 인사팀에 경위를 밝힐 것을 요청하고 개선을 요구’ 했다는 응답은 40명(20.30%), ‘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함’이라는 응답은 11명(5.58%)으로 집계되었지만 반면에 ‘고용상 처우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묵인하고 넘어감’이라는 응답 또한 40명(20.30%)으로 집계되어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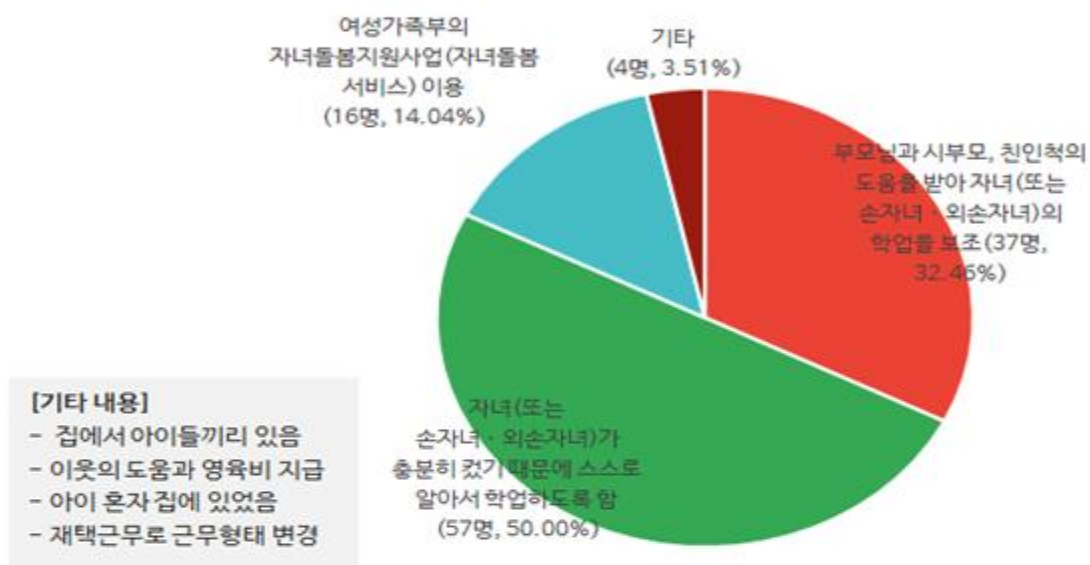


3. 코로나19에 따른 영향

-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집계하기 위해 먼저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‘그렇다’는 응답이 97명(49.24%)으로, ‘아니오’라는 응답이 94명(42.72%)로 집계되었고 무응답은 6명(3.05%)으로 집계됨
- 앞선 질문에 ‘그렇다’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‘코로나19로 인한 휴교령이 내려져 자녀 및 손자녀·외손자녀의 온라인 수업이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루어졌을 때 어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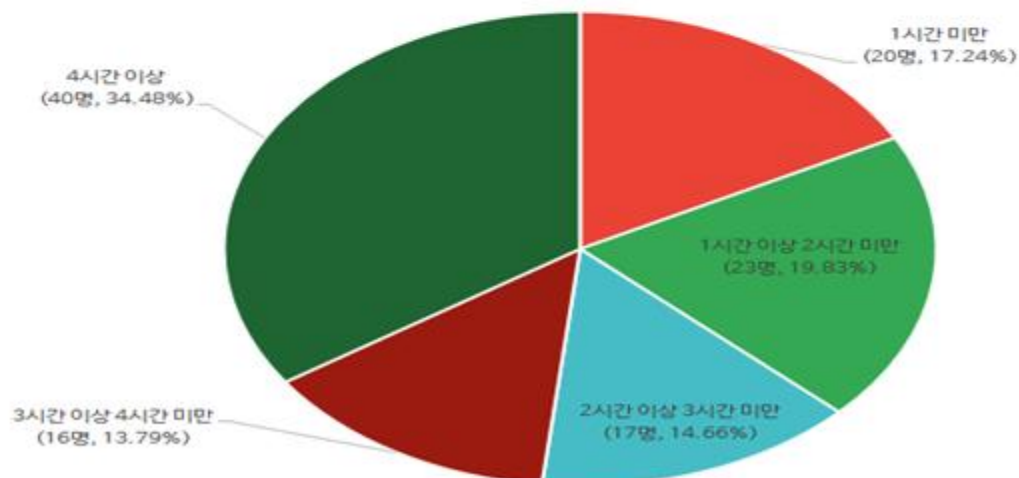
게 했나요?’ (복수응답 가능)라는 질문에 대해 ‘자녀 등이 충분히 컸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학업하도록 함’이라는 응답이 57건(50%)으로 집계되었지만 ‘부모님과 시부모,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자녀 등의 학업을 보조’ 한다는 응답이 37건(32.46%), ‘여성가족부의 자녀돌봄지원사업(자녀돌봄 서비스) 이용’이라는 응답은 16건(14.04%)으로 집계됨

코로나19로 인한 휴교령이 내려져 자녀 및 손자녀·외손자녀의 온라인 수업이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했나요? (복수응답가능)



-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돌봄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묻자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40명(34.48%)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고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3명(19.83%),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0명(17.24%),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17명(14.66%),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16명(13.79%)으로 나타났음

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돌봄노동 시간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인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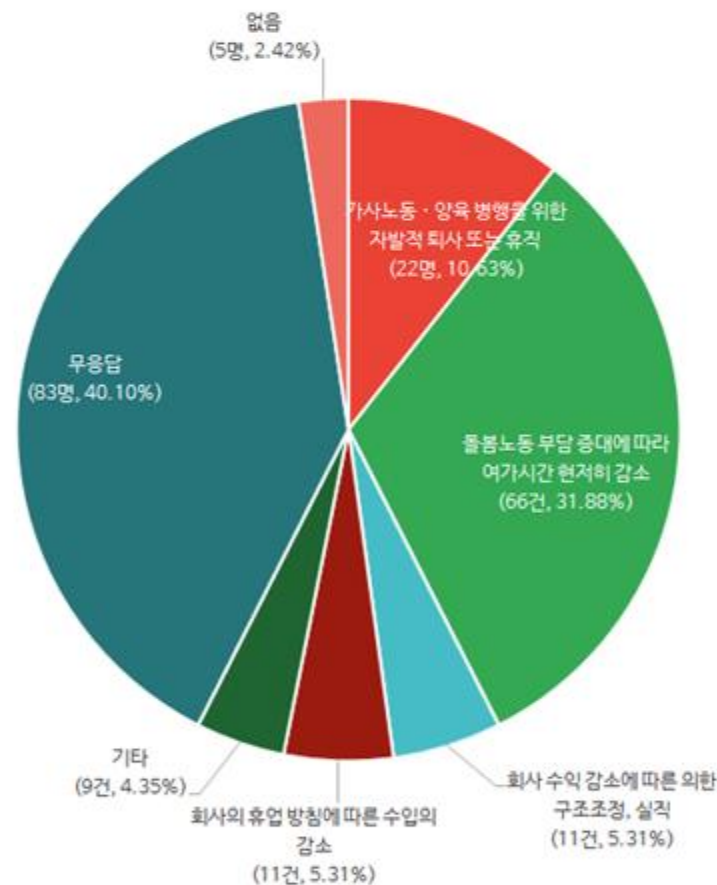


-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노동자로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(복수응답 가능)한 결과 ‘돌봄노동 부담 증대에 따라 여가시간이 현저히 감소’ 했다는 응답이 66건 (31.88%)으로 집계되었고 ‘가사노동·양육 병행을 위한 자발적 퇴사 또는 휴직’ 이 22명(10.63%), ‘회사의 휴업 방침에 따른 수입의 감소’ 및 ‘회사 수익 감소에 의한 구조조정, 실직’ 이 각각 11건(5.31%)으로 집계됐으며 ‘사람들을 잘 못하지 못함’, ‘직장 일하는 시간동안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한다는 점’ (2건), ‘가사노동 및 아이들 먹는 것 준비’ (2건), ‘회사 업무가 더 증가’ (2건), ‘사생활 노출’, ‘양육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’, ‘정신적 우울’ 을 포함한 기타 응답이 9건 (4.35%)으로 집계된 반면에 ‘없음’ 이라는 응답이 5명(2.42%), 무응답이 83명(40.10%)으로 집계

코로나19로 인해 여성노동자로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?
(복수응답 가능)

[기타 내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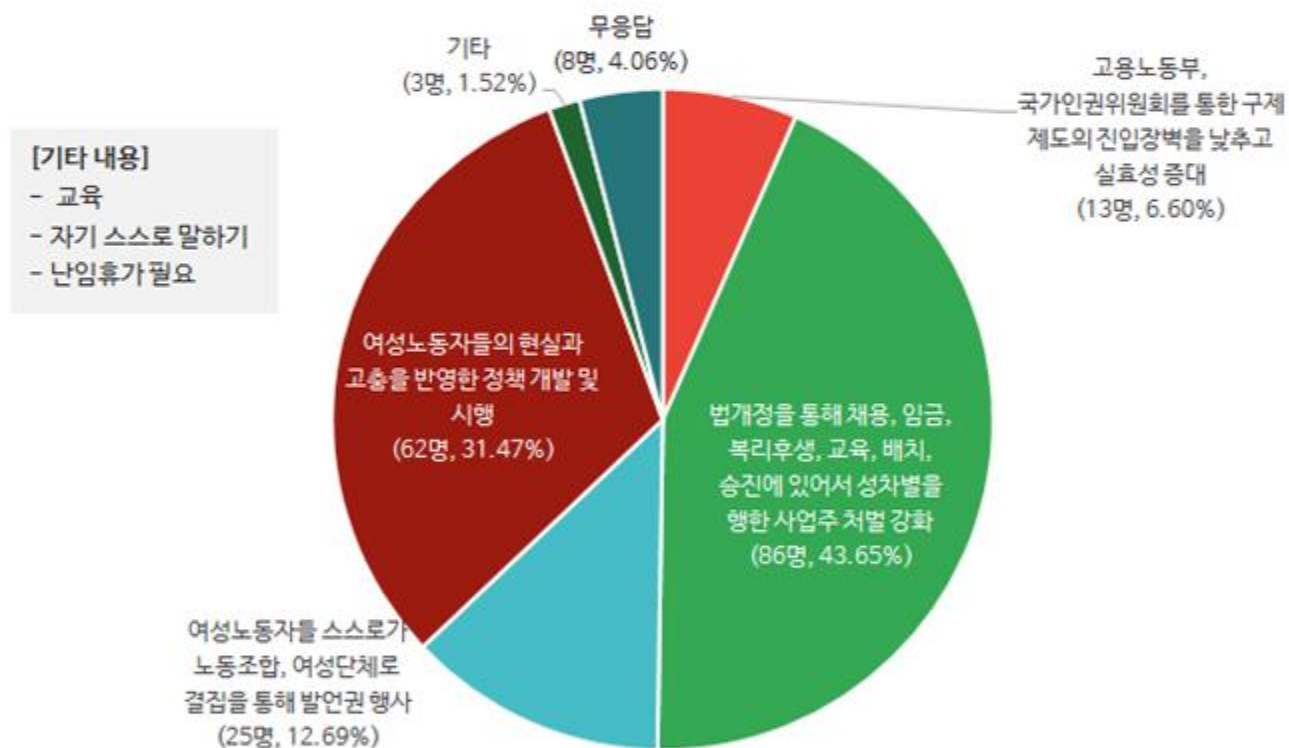
-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함
- 직장 일하는 시간동안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한다는 점(2)
- 가사노동 및 아이들 먹는 것 준비(2)
- 사생활 노출
- 회사업무가 더 증가(민원폭발) (2)
- 양육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
- 정신적 우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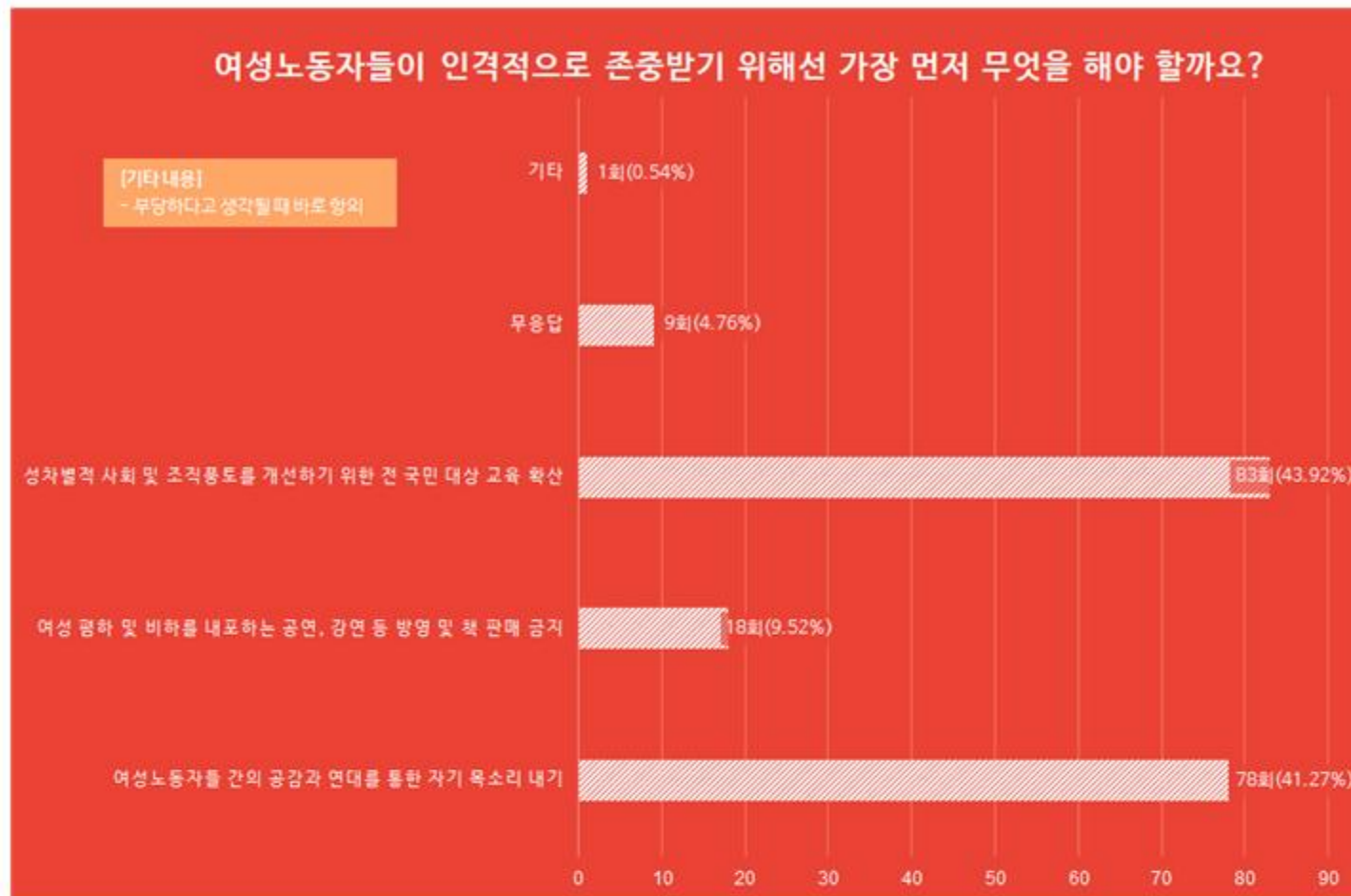
4. 개선방법

- 여성노동자들로 하여금 ‘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?’를 질문한 결과 ‘법 개정을 통해 채용, 임금, 복리후생, 교육, 배치,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을 행한 사업주 처벌 강화’라는 응답이 86명(43.65%)으로 가장 높았고 ‘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고충을 반영한 정책 개발 및 시행’이라는 응답이 62명(31.47%)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‘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노동조합, 여성단체로 결집을 통해 발언권 행사’라는 응답이 25명(12.69%)으로 집계됨. 기타 내용으로는 교육, 자기 스스로 말하기, 난임휴가 필요라는 응답이 있었음.

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?



- ‘여성노동자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?(복수응답 가능)’라는 질문에 대해 ‘성차별적 사회 및 조직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전 국민 대상 교육 확산’이라는 응답이 83건(43.92%)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고 ‘여성노동자들 간의 공감과 연대를 통한 자기 목소리 내기’가 78건(41.27%), ‘여성 폄하 및 비하를 내포하는 공연, 강연 등 방영 및 책 판매 금지’라는 응답이 18건(9.52%)으로 집계됨



5. 3/8 여성대회를 맞이한 권리선언

- ‘113주년 3/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나의 권리를 선언해 봅시다.’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아래 도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응답함

- 여성이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가정 내에서 함께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멋진 일입니다!
- 나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.
- 나는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다
- 여성으로 대우받는 건전한 직장. 색안경쓰고 보지 않는 회사.
- 보건휴가 눈치보지 말고 꼭 필요할 때 쓰자
- 나는 엄마이고, 딸이고, 며느리이기 전에 바로 나다
-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에 대해 목소리를 내자
- 성폭력없는 안전한 일터. 일한만큼 임금받자!
- 나 스스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겠다
- 나의 자매들에게 공감과 연대를
- 나는 여성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다

- 사람은 다양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동일하다
- 나의 인권과 권리를 당당하게 목소리 내기
- 권리는 남녀구분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
- 평등한 육아와 살림에 여성 본인만의 의무가 아닌 가족 내의 의식개선
- 난 소중한 사람
- 엄마도 여성이다
- 여성 상사조차 남성이라는 이유로 편애하는 모습에 화가 날 때가 많다. 동성 간에도 느낄 수 있는 성차별~!! 없는 세상에 살고싶다.
- 부당할 때 침묵있나 묵비권은 상대방의 긍정의 의미다. 대응하자. 여성노동자여!!!
- 여성의 날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
- 나는 너네가 함부로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야
- 나의 인격은 내가 지킨다.
- 무슨 일을 하던 넌 결코 작지 않다.
- 나도 가장 될 수 있다
- 위대한 여성이여!! 힘차게 나아가자!!!
- 여성이 하는 일 또한 단순 업무의 일이 아니다.
-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
- 결혼은 여성에게 불리하다. 출산을 두려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
- 모든 일에는 성이 없다.
- 동등한 인권자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호만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.
- 성폭력 가해자, 그리고 그들, 그들은 여성의 미래가 아니다. 이제 우리가 미래다.
- 나는 나다. 눈치보지 말고 내 마음이 시키는대로 하자.
- 나는 내 마음이 즐거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.

- ‘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덧붙여 주세요! 감사합니다.’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응답함

- 여성들만 있는 조직에 일하고 싶다!
-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더 큰 목소리를 냅시다
- 여성 남성 모두 평등한 인격으로 존중되어야 한다
- "말뿐인 평등은 이제 그만.
- 직급에 따른 육아에 대한 복지 불평등도 그만"
- 남자들만 근무하는 회사에서 여자혼자서 견디기가 무척힘들다. 왕따없는 회사였으면...

- 보건휴가를 월, 금에도 필요시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수 있으면 합니다
- 공무원과 공무원직의 업무 한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일을 하나하나 다 떠 맡기고 무능한 공무원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"
- 평등하게
- 파이팅
- 제도 개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현장에서 실천합니다
- 자유롭게 행복한 삶
- 힘이 없는 여성 노동자가 아무리 애를써도 불합리한 제도를 바꿀수가 없다 강력한 처벌로써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확립하면 좋을것 같다
- 부당한 처우에 관해 의견을 내고 싶어도 장벽이 높다
- 평등한세상 차별없는 일터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줍시다
- 자녀가 부모노인 돌봄서비스가있듯이 부모님이 아이들 양육 도와주면 경제적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
- 여성이 세상에서 존중받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.남성들이여 당신에 어머니도 부인도 딸도 여자다
- 양성평등의 그날을 위해
- 남여구분이 없는 그런 환경을 원한다
- 누구나가 원하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.
- 늘 여성의 권익에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
-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고충을 반영한 정책개발 및 시행, 사회인식 개선이 필요하다.
-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을 잘 지키는지 감사제도가 필요하다
- 우리도 최선을 다하자
- ^^
- 감사
- 여성들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설 수 있는 내 안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여성이 교육을 받거나 자문을 구하고, 연대할 수 있는 곳이 많았음 좋겠어요.
- 아들 딸 낳고 직장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가정살림과 육아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살아가는게 힘이 들어요 여성에게는 당연한 역할이 유독 많아요 전 우선 제 아들 딸 교육부터 부모님세대와 차이를 두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중매체와 언론 그리고 단체에서도 인식을 바꾸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
- 수고하세요!
- 평등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
- 가족돌봄휴직도 육아휴직처럼 지원되어야합니다

- 코로나시대 특히 여성노동자분들 수고가 많으세요 보건이나 의료쪽에 계신분들의 희생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~~!!!
- 성차별.인종차별 등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!
- 여성주부님들 힘을가져요
-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서 나의 권리를 지키고 찾읍시다.
-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는 세상이 되길
- 차별없는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
- 나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나서야한다
- 함께투쟁!!
- 누구나 사랑받아야하고 존중받아야한다
- 여성 스스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해야한다고 봅니다
-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
-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
- 함께사는 세상
- 노력한만큼결과
- 코로나로 인한 수익 감소를 어느정도 보상해주었음 좋겠습니다
- 나부터 고정관념을탈피하고 남녀가 동등한 사회되기에 밑거름되는데 거름이 될수있기를
- 감사합니다
- 이런거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
- 고생하셨습니다
- 여성임이 자랑스럽다.
- 여성노동자들에게 일과 육아, 가정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- 이런 설문조사들을 통해 제발 갑질하지 말라고 교육좀부탁합니다
- 잘살아봅시다
- 여성를 존중했야한다
- 여성은 위대하다
- 감사합니다.
- 여성권익 향상 정책 실현
- 일가정양립하기좋은나라
- 여성이라고 승진도없고 최저시급에 많은 노동을시키고도 부당하다 말한마디 못하고 일하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해야합니다
- 여성 남성 모두 같은 노동자로 대우받기를 희망합니다

- 복리후생 임금강화
- 힘내세요
- 아이를 양육하면서 눈치보지않고 당당하게 일할수있었으면 좋겠다.
- 디지털 성범죄나 성착취물 영상 소지만으로도 처벌 강화, 성 범죄자의 처벌 강화 (현재의 형량은 너무 낮음)
- 더 나은 환경을 후손에게
- 여성 노동자들 화이팅!
- 설문을 통해 여성의날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
- 감사요
- 건강한 여성! 당당한 노동자! 함께 사는 사회!
- 여성이여 일어나라
- 케케묵은 낡은틀 싹둑 잘라버리고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!!
- 여성의 권위가 많이 높아지길 바랍니다
- 나는 모두와 같은 소중한 사람인데 가족에 일에 치이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인식과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
- 여성이 차별받지않은 직장
- 모든 사람에게 노동교육 필요!
-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을 없앴시다
- 나자신을지키고사랑하자
- 나도 인간이기에 똑같이 대해라
- 감사
- 하나에서 무한대까지 여성이 나서야 성평등세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.
-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!
-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화이팅!
- 참지말고 말해요
- 여유를 갖고 살아요~
- 대한민국 여성 모두 화이팅!

<끝>